

이 집 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 적	1,001천 km ²	G D P	2,821억 달러 (2014년)
인 구	83.5백만 명 (2014년)	1 인 당 GDP	3,377달러 (2014년)
정 치 체 제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Egyptian Pound (E£)
대 외 정 책	친서방, 친아랍	환 율(달러당)	7.08 (2014년 평균)

-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8,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대국임. 인구구성은 이집트인이 99%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종교는 전체 인구의 90%가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그 외 9% 가량이 콥트교를 믿음.
-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에 위치하여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정책 등을 통해 역내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2011년 1월 Murabak 대통령의 30년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Morsi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이슬람주의 정책 강요와 권력 기반 확대에만 급급하다 집권 1년 만에 축출됨.
- 이후 과도정부를 거쳐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el-Sisi 국방장관이 당선되어 취임함. el-Sisi 대통령은 Morsi 前대통령 지지세력 및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정권 안정에 따른 경제성장세 전망

- 이집트 경제는 2011년 이후 반정부 시위, Mubarak 대통령 퇴진, 쿠데타 등의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이어지면서 2010년 5.1%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2%대로 크게 하락하였음.
- 선거를 통해 el-sisi 前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식 정부가 2014년 출범하였으나, 시나이 반도에서 빈발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영향과 무슬림형제단 등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 이어지면서 정치적·사회적 불안의 지속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2.3%에 그침.
- 2015년에는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수니파 걸프국들의 원조가 사회기반시설 개발로 이어지는 한편,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은 섬유 및 식품 산업의 수출 증가와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은 4.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향후에도 경제성장률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석유·가스 수출이 약세를 보이며 2006~08년과 같은 8%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력 및 유류 보조금 삭감 등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 축소 전망

- 2010년 GDP 대비 7.7%를 기록하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민심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2013년 GDP 대비 13.7%까지 확대됨.
- 2014년에는 유류 및 전력 보조금 삭감, 법인 및 개인 최고소득세율 5% 인상 발표 등 재정적자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 시행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2.0%까지 축소됨.
 -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보조금을 5년 이내 전면 폐지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음.

- 보조금 삭감 등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축소 정책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GDP 대비 10.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파운드화 가치 하락, 보조금 삭감 등에 따른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 정치 및 사회 불안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 불안정 및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2014년에는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는 한편, 에너지 보조금 삭감,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1월에 단행된 공공 부문 최저임금의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9.5%) 대비 상승한 10.2%를 기록함.
- 2015년에도 보조금 삭감 지속, 파운드화 가치 하락, 사회적 혼란에 따른 생필품 공급체계의 일시적인 붕괴로 9.5%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o	2015 ^e
경제성장률	1.8	2.2	2.1	2.3	4.0
재정수지 / GDP	-10.1	-10.6	-13.7	-12.0	-10.5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7.1	9.5	10.2	9.5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관광업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13년 기준 GDP의 부문별 비중은 서비스 부문이 48.0%,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및 석유, 천연가스 개발 등 일반 산업 부문이 37.5%, 면화 중심의 농업이 14.5%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대체로 취약하고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국내 정치, 중동 지역의 정치/사회 상황, 세계 경기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가스가 국가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

- 원유는 최대 유전인 Suez 유전의 고갈과 신규 유전 개발의 부진으로 일일 생산량이 2003년 75.0만 배럴에서 2013년 71.4만 배럴로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는 나일 강 삼각주와 서부 사막 지역에서 탐사·채굴에 성공하여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3년 1.8조 m³로, 이는 아프리카 대륙 3위 규모임. 연간 생산량은 2003년 301억 m³에서 2013년에는 561억 m³로 증가하였음.
- 2015년 3월 North Alexandria와 서부 지중해의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BP(British Petroleum)가 1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천연가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구조 개혁, 투자 촉진,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구조 개혁을 위해 최근 독점규제법을 개정하고 투자, 파산, 기업 관련 법률 및 규제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낙후된 자본시장의 현대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보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이집트의 투자 계획은 경제성장에 초석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 교육, 과학 연구 등 인적·실물자본에 대한 투자도 우선시되고 있음.
- 2014년 새 헌법은 2017년까지 교육, 보건, 과학 연구에 각각 GDP 대비 6%, 3%, 1%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Suez 운하 지역 개발 프로젝트로 Suez 운하의 확장 외에도 주변 도시에 공업지대, 양식장, 기술단지, 항구, 공항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무역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그 외에도 주택, 도로, 에너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초 달러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노년 및 장애인층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 빈곤 해소를 위해 식량창고 증설, 농업 금융지원 확대 등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보조금, 세제 개혁 단행

- 이집트 정부는 유류 및 전력 보조금을 삭감하고, 세제를 개편하는 등 2014년 기준 GDP 대비 12%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8.0~8.5%로 낮추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음.
- 세수(稅收) 증대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소비세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보조금 제도 개혁으로 향후 4~5년간 유류와 전기 요금이 매년 2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공공분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하고 보너스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토록 개편하였으며, 신규 채용은 재무부 승인을 받도록 함.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유지 전망

-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관광과 해운 분야의 회복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1.4%)보다 개선된 0.8%를 기록하였음.

- 2015년에는 관광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조 및 석유·가스 등 타 분야의 수출 부진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0.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액 소폭 증가 전망

- 외환보유액은 2011년 정치, 사회 불안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외국인 투자의 감소 및 투자 회수, 외국인들의 이집트 국채 구매,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인해 323.5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110~1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4년에도 12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13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 2014년말 기준 D.S.R.은 7.7%,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7.7%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총외채잔액은 2011년 351억 달러에서 2014년 522억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향후 저유가 기조로 GCC 국가들의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이집트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외채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 표 3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경 상 수 지	-7,900	-9,541	-3,488	-2,102	-2,419
경 상 수 지 / G D P	-3.4	-3.7	-1.4	-0.8	-0.7
상 품 수 지	-28,544	-34,735	-29,273	-23,528	-22,552
수 출	27,913	25,092	26,534	25,072	21,157
수 입	56,458	59,827	55,807	48,601	43,709
외 환 보 유 액	13,658	11,628	13,608	12,512	13,099
총 외 채 잔 액	35,148	39,998	44,430	50,002	52,170
총 외 채 잔 액 / G D P	15.2	15.4	17.4	17.7	17.1
D S R	5.6	6.3	7.0	7.7	8.2

자료: IMF, EIU.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el-Sisi 대통령 당선과 정식 정부 출범

- 1981년 이래 장기 집권한 Murabak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로 2011년 1월 하야하면서 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2012년 6월 Morsi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이슬람주의 세력 확산에만 급급하다 국민적 반발을 초래, 2013년 7월 el-Sisi 국방장관 주도의 쿠데타로 정부가 전복됨.
 - Morsi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은 군부의 개입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지지자들에게 저항을 촉구, Morsi 지지파와 반대 파간의 유혈 충돌 및 군·경의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1,500명 이상 발생하였음.
- 이후 2014년 5월 26~28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el-Sisi 국방장관이 예상대로 96.9%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 동년 6월 8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정식 정부가 출범함.
 - 그러나 이슬람 세력과 주요 청년/시민단체들이 선거를 보이콧하여 투표율이 부진함에 따라 최종 투표율은 47.5%에 그쳐 과반수에 미달하였음.

□ el-Sisi 대통령의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대대적 탄압 지속

- 정식 정부 출범 전 이집트 과도정부는 2013년 12월 경찰본부 폭발 사건을 무슬림형제단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무슬림형제단은 불법화되어 집회, 시위 등 모든 단체활동을 금지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한편,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처벌의 대상이 됨.
 -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이 테러를 자행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2014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하였음.

- 이집트 법원은 2014년 3월 권석재판 3일 만에 무슬림형제단 회원 529명에게 2013년의 반군부 시위에 의한 사망자 발생의 책임을 몰아 폭력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동년 4월에도 무슬림형제단 회원 683명에게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였음.
- 비록 3월에 사형 선고를 받은 529명 중 49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줄속 재판을 통해 내려진 집단적 사형 선고는 UN과 인권 단체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였음.
- 이후에도 이집트 법원은 지도자를 포함한 무슬림형제단 회원 및 지지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하는 등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
-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el-Sisi 정부의 과도한 탄압은 이집트의 이슬람 세력을 결집시켜 반정부 운동에 힘을 실는 한편 그 노선의 과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앞서 el-Sisi 대통령은 선거 전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선언,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예고한 바 있음.
- el-Sisi 정부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2014년 6월 23일 이집트 형사법원이 Morsi 축출 이후 이집트 군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계속해온 위성방송 채널 Al-Jazeera의 특파원 1명(호주인)과 프로듀서 2명(이집트인)에게 허위보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하여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시나이 반도를 포함한 이집트 전역의 테러 발생으로 사회불안 가중

- 인구밀도가 낮아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나이 반도는 2011년 초 Mubarak 퇴진 이후 테러조직들의 근거지로 전락하여 치안이 크게 악화된 상태임.

- 특히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IS(Islamic State)를 추종하는 Ansar Bait al-Maqdis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로 2014년 2월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 인근에서 한국인 3명과 이집트인 1명이 사망하였으며, 2015년 4월에도 연쇄 폭탄테러로 14명이 사망하는 등 테러 공격이 끊이지 않는 상황임.
- 시나이 반도외에도 수도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마할라 지역 등 이집트 전역에서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2015년 3월에만 20차례의 폭탄 공격이 발생함.
- 2015년 4월에도 수도 카이로의 '5월 15일' 다리 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경찰관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짐.

3. 국제관계

□ el-Sisi 정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은 다소 복잡

-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주의 정치단체의 세력 확대를 경계하는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은 Morsi 축출 당시부터 대부분 이집트 신정부를 지지하며 경제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음.
- 정식 정부 출범 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이집트 정부에 12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자금지원을 약속함.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Abdullah 前국왕(2015년 1월 타계)이 이집트를 방문하여 el-Sisi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새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우방으로 자임하고 있음.
- 반면 카타르는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 중 유일하게 무슬림형제단을 기반으로 한 Morsi 정권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el-Sisi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에 있음. 2015년 2월 아랍연맹에서 이집트 대표가 '카타르가 테러리즘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카타르 정부는 이집트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한 바 있음.
- 전통적으로 이집트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은 el-Sisi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한편, 이란은 군부의 Morsi 축출을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부당한 행위'라 평가하였음.

- Morsi 축출 이후, 아프리카 연합은 이집트의 회원자격을 정지시켰으나, 대선과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회원자격을 회복시킴.

□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 재개

- 미국은 러시아 견제와 중동 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집트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음. 미국은 동결자금 5.7억 달러를 해제하고 시나이 반도의 테러 집단에 대항하기 위해 아파치 헬기 10대를 인도하며 군사적 지원을 재개함.
-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의 소탕을 위해 미국 외에도 아랍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는 지원을 바탕으로 IS가 이집트 콕틱과 주민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리비아의 IS 기지를 공습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탕감 경험 보유 및 걸프 지역 국가의 원조 지속

- 이집트는 파리 클럽과 1987년,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 212억 달러 규모의 외채 리스케줄링에 합의한 바 있으며, IMF로부터 1991년 3.4억 달러의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을 승인받아 2.1억 달러를 인출하였고 1993년과 1996년에는 각각 확장차관(EFF) 5.7억 달러, 1996년 긴급 유동성 자금 3.9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승인받은 바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는 2013년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 중단 이후 1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2015년 이집트 투자 포럼에서는 오만과 함께 12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하는 등 이집트에 대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원조가 지속되고 있음.

□ 외환보유고는 급감하였으나 국가부도위험은 감소 추세

- Mubarak 정권 붕괴 이래 외환보유고는 2010년 323.5억 달러에서 2014년 125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고, 총외채잔액은 2011년 351억 달러에서

2014년 522억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Bloomberg의 이집트 국제 5년물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 spread)는 2012년 11월 30일 393bp에서 2013년 6월 24일 914bp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5년 4월 현재 339bp로 하락, 이집트의 국가부도위험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 평가등급 상향 조정

- Murabak 정권 붕괴 후 정국 불안이 경제상황 악화로 이어짐에 따라, 신용평가 3사는 2012~13년에 걸쳐 신용등급을 강등하였으나, Moody's와 Fitch는 최근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최근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함.
- OECD 역시 정치 불안과 경제지표 악화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신용 등급을 4등급에서 6등급으로 강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표 4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D2 (2014. 7.)	D2 (2013. 8.)
OECD	6등급 (2015. 1.)	6등급 (2014. 1.)
S&P	B- (2013.11.)	CCC+ (2013. 5.)
Moody's	B3 (2015. 4.)	Caa1 (2013. 3.)
Fitch	B (2014.12.)	B- (2014. 6.)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95년 4월 13일 (북한과는 1963년 8월 24일)
- 주요 협정: 항공협정('79), 이중과세방지협정('92), 무역협정('96),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96), 사증면제협정('96), 원자력평화협정('01)

□ 한-이집트간 교역 규모는 회복세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규모는 2010년 31.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민주화 혁명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로 2011~13년 24~26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다가 2014년 29.0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임.
- 2014년 대 이집트 수출은 자동차 및 그 부품, 합성수지 등을 중심으로 23.6억 달러(전년대비 54.0% 증가), 수입은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5.3억 달러(전년대비 47.7% 감소)를 기록하였음.

< 표 5 > 한 · 이집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 출	1,807	1,535	2,364	자동차 및 그 부품, 합성수지
수 입	802	1,016	532	석유제품, 천연가스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규모 역시 회복세

- 대 이집트 주요 투자 업종은 광업(총누적투자액 기준 68.1%)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대 이집트 투자규모 역시 정치 불안의 여파로 2011년 768만 달러에서 2012~13년 200만 달러대로 위축된 이후, 2014년 1,089만 달러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말 누계기준 신규법인 수 40건, 총투자금액 2.0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V. 종합의견

- 이집트는 2011년 Mubarak 정권, 2013년 Morsi 정권 붕괴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쌍둥이 적자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 외채 증가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경제 불안이 심화되어 옴.
- 정식 정부 출범 이후 Morsi 前대통령의 지지세력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el-Sisi 대통령은 보조금 삭감, 세계 개편 등 경제개혁 단행과 함께 테러 소탕, 무슬림형제단 탄압 등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있음.

- el-Sisi 정권은 대외적으로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어 2015년에는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 사회적기반시설 개발 증가와 섬유, 식품 산업의 수출 증가로 4.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 2014년말 기준 D.S.R.은 7.7%,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7.7%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외채규모는 증가해함에 따라 GCC 국가들의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투자 유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외채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조사역 임민교 (☎02-6255-5727)
E-mail: ymg@koreaexim.go.kr